

박서준 “선택받다가 선택하려니, 가장 어려운 부분”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작품을)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거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선택이 되게 어렵다. 책임을 저야 하는 상황도 너무 많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오늘 뭐 먹지’가 제일 큰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급식을 먹고 싶을 때가 꽤 있다. 주는 대로 먹고 싶은 느낌 있지 않나. 오늘 먹는 것도 선택을 해서 좋아야만 알았다고 느끼지 않나. 옛날에는 오디션 보는 입장이라 선택을 받으면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료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다. 지금은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멍둥이를 맞거나 칭찬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계속 그래야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영화 ‘사자’ 열연

영화 ‘사자’의 박서준(31)은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항상 고민한다. 그렇게 살아왔다. 하루를 몇 개로 쪼개서 살아왔다. 그게 몸에 너무 배 있다. 생각이 워낙 많은 편이다.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는 스타일이다. 어떤 일을 해도 완벽에 붙어있는 편이다. 완벽에 서 있어야 뭔가 계속 떠오르고 나오더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지 몇 시까진 이걸 하고 몇 시까진 이걸 해야겠다. 촬영하는 날은 촬영을 하고, 다음에는 이걸 하고,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항상 생각한다. 시작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삶의 열정을 드러냈다.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는만큼 휴식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몸의 휴식뿐 아니라 머리가 쉬고 싶다고 한다. “실 때는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이게 몸이 쉬는 게 정말로 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머리가 쉬어야 쉬는 거라고 하더라.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 좀 그런 편인데 실 때는 최대한 아무생각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보상 받는 느낌이 있다.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다. 말은 이래도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 게 문제다.”

‘사자’는 박서준의 배역인 ‘용후’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영화가 전개된다. ‘배인 풀이기는 하다. 물론 ‘사자’라는 영화가 ‘용후’의 감정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 ‘안 신부’도 만나는 등 주변인물과

의 관계들이 있다. 촬영할 때는 ‘투뽀’, ‘원뽀’ 이런 걸 느끼지 못한다. 상대 배우와 호흡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거다. 대신에 이번 영화는 ‘용후’의 감정이 중요하더니 호흡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컸다”고 전했다.

극중 ‘용후’는 약과 마주한 격투기 챔피언이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뒤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을 닫은 인물이다. 용후는 어느 날 약국을 쫓아 후 갑자기 생긴 원인불명의 손 상처를 계기로 ‘안 신부’를 만나게 된다. 안 신부와 함께하며 자신의 상처 난 손에 깃든 특별한 힘과 세상 곳곳에 숨은 악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안 신부와 함께 이를 차단하기 위해분투한다.

박서준은 기존의 유쾌러스하면서도 ‘스윗’한 이미지와 달리 이번에는 절제된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그동안은 유쾌러스한 역할을 주로 했다. 어느 날 김주환 감독에게 웃음을 빼고 진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기를 해보라고 싶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김주환 감독이 자기가 준비하는 게 있는데 비슷한 느낌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자’를 진행하게 됐다. (안신부) 선배님 정도의 경력이 되면 안 해본 역할이 거의 없었지만, 나는 아직 안 해본 역할이 많다. 선택의 폭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확실하게 변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에도 익숙한 것보다도 다른 장르와 분위기를 가진 역할을 해보아야 또 다른 연기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했다”고 한다.

박서준이 열연한 영화 ‘사자’는 31일 개봉한다.



송중국 딸 송지아, 아이돌 데뷔하러나 JYP엔터테인먼트 계약 제의

탤런트 박연수(40)의 딸 송지아(12)가 JYP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제의를 받았다.

박연수는 최근 KBS 2TV 예능볼 해피투게더' 녹화에서 송지아의 화보가 공개된 후 대형 기획사에서 연락이 많이 왔으며 'JYP에서는 미팅도 아니고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 밝혔다. 송지아는 JYP 계약 제의를 받은 소감과 자신의 선택을 털어놓음을 밝혔다.

송지아는 최근 공개된 사진에서 그룹 '미쓰에이' 출신 배우지(25)를 닮은 외모로 시선을 끌었다. MBC TV 예능볼 '일밤-아빠 어디가' (2014-2015)에 아버지인 축구스타 송중국(40)과 출연했을 때보다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박연수는 "보정을 한 것도 아닌 그냥 사진"이라고 했고 MC 유재석(47)은 지아의 표정을 칭찬하며 "나도 좀 배워야겠다"고 감탄했다.

방탄소년단,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4개 부문 후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VMA)'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빌보드' 등 외신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최근 앨범 '멜 오브 더 솔: 페르소나'의 타이틀곡으로 미국 팝스타 할시가 피쳐링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베스트 협업 부문 후보가 됐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베스트 안무와 베스트 아트 디렉션 후보로도 지명됐다. '베스트 아트 디렉션'은 작업에 참여한 박진실·김보나(MU:U)가 후보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올해 신설된 베스트 K 팝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다. 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몬스타엑스 '후 두 유 러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캣 & 도그', NCT 127 '레귤러', 엑소 '템포'와 경쟁한다.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 쥐띠**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한 대가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니 뒷사람에게 신임도 받고 자존심도 회복할 기회가 왔다. 타, 사, 오성세 외연한 자세로 겸손하게 대처함이 좋을 듯. 3, 5, 12월생 애정으로 갈팡질팡 마음안상한다. 상대는 곧 떠난다.
- 소띠**
허세와 위장된 체세로 기고만장하다가 곤경에 빠지니 혈조자가 없겠다. 분수를 알고 겸손한 태도로 신임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많고 많은 사람들 사귀려 들지 말고 지조를 지켜라. 1, 8, 11월생 정말 힘들다. 4, 8, 12월생 받을 것 독촉하라.
- 범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 된다. 새로운 각오로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풀리지 않은 일은 친지와 상의하면 해결될 듯. 두 사람이 한 사람 놓고 줄다리하는구나. 애정과 사업은 갈등. 5, 7, 12월생 사랑싸움은 길면 안 된다.
- 토끼띠**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고 무슨 일이든지 욕심내지 말고 처분할 마음대로 대한다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행운이 도래한다.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을 다하라. 4, 10월생 함께 사는 사람 비위 상하게 하면 파산한다. 2, 3, 12월생이 당신을 찾고 있다.
- 용띠**
직장에서 굶은 일도 마다 않고 최선을 다하니 찬사를 받고 승진도 될 운이다. 주인의식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함이 좋을 듯. 장사는 잘 안 된다. 낙심은 금물. 외롭다고 함부로 친신하면 곤란. 1, 7, 9월생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있을 곳이 못 된다.
- 뱀띠**
혼자서 처리하기에 힘겨운 일애 시달리다 보니 건강을 해칠 염려 있다.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는 가족과 의논해서 해결함이 좋다. 3, 8, 11월생은 부부 별거한다지만 생각 풀으며 이말할 수도 있으나 매사에 조심하라. 다크 브라운으로 단장해 볼 것.
- 말띠**
필요 이상으로 마음만 들뜨고 이성문제도 불화 있겠다. 남의 말에 현혹되어서 목잡하겠으니 과감하게 결정함이 좋을 듯. 부모와 의견대립 조심하고 금전 문서관계 주의. 기, 오, 8월생과 상의하라. 두 가지 적은 글씨 아포다.
- 양띠**
변동할 기회가 온다 해도 현재대로 유지해야 장애 없이 목적을 달성할 운이다. 다만 부리는 사람을 조심하라. 손해를 끼치고 나를 떠날 우려 있다. 주변사람으로 인해 신경 쓰이고 불화도 심각해질 수다. 애정은 후회 후 다시 만나라.
- 원숭이띠**
마음도 욕케도 지친 상태에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으나 아픈 심정을 알아줄 사람은 없다. 1, 5, 9월생 더 많은 인내와 용기가 요구된다. 인정에 끌려서 손해 보는 일도 없도록 조심할 것. 돈보다 사랑에 열거 된다. 변동하려면 속히 할 것.
- 닭띠**
현재는 침체상태이지만 명예와 지위가 향상될 것이며 경쟁 속에서도 앞서갈 운. 자기 관리를 위해서 주위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함이 좋을 듯. 잡으려면 꼭 잡고 사정하라. 진실이 요구됨. 북, 서쪽으로는 가지 마라. 지출만 생긴다.
- 개띠**
지나치게 포부를 크게 가지면 이루기 어렵다. 작은 일에 더 큰 신경을 써야 한다. 받을 것은 많으나 내 것이 안되고 남의 것이 되는 격. 기다리던 사람 내일이면 만날 수 있을 듯. 기, 사, 오성세는 하는 일에 방해자가 생겨 힘들 듯.
- 돼지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탐하지 마라. 도리어 손해 본다. 실속 없는 일로 심신만 피곤해진다. 미혼자는 혼자서 신경 쓰느라 머리 아프고 자존심만 상할 뿐이다. 2, 8, 10월생 동업자가 찾아온다. 잡아라. 7, 9, 10월생 애정 점점.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